

2025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양자 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신민금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044-414-1169)

김제국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044-414-1039)



차 례

1. 머리말
2. 한-아세안 정상회의
3. 다자 정상회의
4. 양자 회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5.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CSP)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함.
 - 세 가지 비전(C·S·P 비전)은 CSP의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의미함.
 - 이는 각각 인적교류 확대, 교역·투자협력 확대 및 인공지능(AI)·우주항공·전력망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 강화, 초국가범죄 대응 등 안보협력 기반 확대 등을 의미함.
 -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40주년을 맞는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히는 한편, C·S·P 비전 이행을 통해 2029년까지 달성할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한-아세안 인적교류 1,500만 명, 교역액 3,000억 달러'를 제시함.
- ▶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외에도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RCEP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줌.
 - 이번 아세안 주도 다자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WTO 중심의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강화를 공동으로 강조했으며, 역내 경제통합과 공급망 안정성·회복력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함.
 -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한-말 FTA 협상 타결을 통한 자동차·철강·석유 화학 등 분야 추가 시장 개방 및 신통상 분야 협력 기반 구축, 캄보디아와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강화 등 성과를 거둬.
- ▶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 '2026~30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실질적·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는 위 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중심에 두고 한-아세안 FTA 개선, 디지털 세관 협력 등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과 연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
 -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요성이 증대된 원산지 증명, 공급망 투명성 분야를 한-아세안 협력의 전략 축으로 삼아 디지털 세관, 전자원산지증명서 등 아세안의 제도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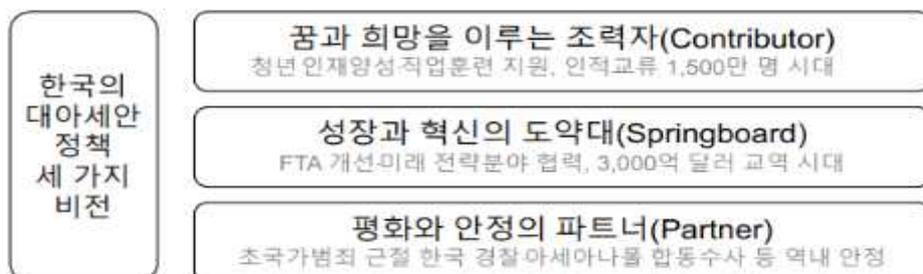
1. 머리말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아세안 순방으로, 새 정부 취임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기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음.
 - 이재명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함.
 -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조기 귀국함에 따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정상회의에는 외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함.
 - 본고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RCEP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의 양자 정상회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한-아세안 정상회의

- 한국은 2025년 10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CSP를 재확인하고, 이에 맞춘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함.
 -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 표현하고 양자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힘.
 - 한국 정부는 2024년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CSP를 수립했으며,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CSP 비전)과 그 핵심으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를 제시함.

그림 1.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세 가지 비전(CSP 비전)



자료: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한국정책방송원(KTV) 블로그.

-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의 원칙 아래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으며,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함.
 - 한국과 아세안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고 규칙 기반으로 국제법을 지지할 것을 강조했으며,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함.
 - AOIP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아세안이 제시한 대응 원칙으로, 특정 국가나 진영 중심의 배타적 인태 협력을 지양하고 아세안 주도의 다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양측은 초국가 범죄,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비전통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으며, 아세안은 사이버 범죄, 온라인 사기 등 대응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함.
 - 그 외 아세안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를 통한 국방협력 강화, 아세안 지역 지뢰 조치 센터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와 한국 간의 첫 회의를 환영함.
 - 국제 현안의 경우에도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평화안정, 미얀마 분쟁 우려 등 외교안보 관련 의견이 제시됨.
-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무역협정 심화와 함께 스타트업, 여성기업, 지식재산,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의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함.
 - 한국과 아세안은 WTO 체제 아래 규칙 기반의 다자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RCEP, 한-아세안 FTA 심화 의지를 확인함.
 - 아세안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협력 공동연구 완료,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공동예비연구서 승인,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의 지원을 환영하며, 각국의 국내 절차 완료 시 2026년 초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양측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아세안 여성 소상공인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 사업과 같은 아세안 기업 지원 촉진에 합의했으며, 지식재산권 부문의 협력 심화를 높이 평가함.
 - 아세안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디지털 무역, 공급망, STI(과학·기술·혁신) 등 분야에서 아세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함.
 - 아세안은 디지털 연결성과 변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 데이터 생태계, △고성능 컴퓨팅 센터, △AI 스타트업 공모전, △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 △AI 솔루션 개발 및 확장을 포괄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구현을 기대한다고 밝힘.

표 1.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개회	1~4항	· 개회, 신규 가입국 동티모르 지원, CSP 발전 의지 확인 · 한국의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의지 표명
정치안보	5~10항	· 한국의 AOIP 4대 분야 협력 촉구 ·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 한국의 기여 확인 · 비전통 안보(초국가 범죄 대응,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협력 강화 · 국방협력 · 국제법 기반 분쟁 해결 및 동남아 비핵지대화 · 인권협력: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AICHR)와 한국 간의 첫 회의 환영
경제	11~17항, 32항	· 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체제 지지 재확인 · RCEP의 확대 및 역할 강화, 한-아세안 FTA 개선 · 스타트업, 여성 소상공인 디지털 경제 참여 촉진 등 기업 지원 확대 · 지식재산권 협력 · 디지털 전환, 공급망 회복력 등 4차 산업혁명 진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환영 · 고용·노동, 산업, 보건 및 인적자원 개발 협력
지속가능·기후·에너지	18~22항, 28~31항	· 중요 광물 탐사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 환영 · 산림협력,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협력 확대 · 지속가능 관광 개발 협력 · 재난관리, 기후협력 강화
연계성·개발격차 해소	23~24항	· MPAC 2025(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를 통한 연계성 협력 강화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작업 계획 IV(2021-2025) 등 개발격차 해소
보건·사회문화	25~27항, 33~37항	· 보건·교육 협력 심화 · 직업기술교육훈련, 장학사업, 공유문화유산 보호 등 인적·문화 교류 강화 ·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 · 사회복지 개발 및 취약계층 포용 협력
국제 현안	38~44항	·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 ·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 · 미얀마 분쟁 및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 5개 합의를사항(5PC) 이행 촉구

자료: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정치안보, 경제 이외 주제에 대한 논의 비중이 높았는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에 따라 지속가능기후에너지, 연계성개발격차 해소, 보건사회문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한국과 아세안은 중요 광물 관리, 산림복원농촌개발, 지속가능 농업, 재생에너지 전환 및 관광 등에서 과학기술, 저탄소,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녹색지속가능 발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함.
 - 양측은 재난관리, 기후행동,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재난 대응 역량, 청정공기, 폐기물 처리, 메탄 감축, 생물다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함.
- 또한 양측은 MPAC 2025 및 아세안 연계성 전략계획(ACSP: 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이행을 통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물류 및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ACV 2045: ASEAN Community Vision 2045) 기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국과 아세안은 보건안보, 교육·문화·스포츠·사회복지 등 사람 중심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문화 교류 및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한-아세안 공동체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함.

3. 다자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정상회의

- 2025년 10월 27일 개최된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3의 기존 협력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했으며 경제, 안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안을 채택함.
 -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협의체라는 특성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안이 구성됨.
 -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 선언문은 기존 정상회의 선언문에 비해 안보 협력의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 선언문은 총 43개 항으로 경제, 안보,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안으로 구성됨.
 - [경제] 세계경제의 파편화 지속 기조 아래 아세안+3의 WTO 체제 및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수호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지역 경제 및 금융 안정 강화를 위한 아세안+3의 역할을 강조함.
 - RCEP 이행의 진전 및 이행 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RCEP 체결 후 첫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함.
 - [안보] 초국가범죄 대응 및 국경 관리 강화 협력, 식량안보, 에너지 협력을 통한 장기적 안보 협력 기반 구축, 지속가능 광물 협력, 보건안보 강화, 재난관리 및 비상대응 등 지역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를 확대함.
 - [사회문화] 문화 간 이해와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등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령화, 장애 등 사회 보호·복지,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 교육, 청소년 교류 등의 이슈를 논의함.
 - [국제 이슈]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점과 미얀마의 분쟁 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 deep concern)를 표명함.

표 2.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 의장성명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개회	1항	·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아세안+3 협력 평가 및 미래 방향	2~5항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등 지역 통합에 있어 아세안+3 중요성 인식 · ‘아세안 2045: 우리의 공동의 미래(ASEAN 2045: Our Shared Future)’ 채택 환영 · AOIP의 중요성 주목 · 아세안+3 협력 작업 계획(2023~2027) 진전 평가
경제	7~12항, 16~18항, 20~21항, 40항	·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수호에 대한 아세안의 의지 재확인 · RCEP 이행 및 협정 발효 후 첫 정상회의 개최 확인 · 지역 금융 안정, 연계성 협력,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혁신 협력 강화 · 동아시아 협력 심화

항목		주요 내용
안보	6항, 13~15항, 22항, 39항	· 초국가범죄 대응, 국경 관리 강화 협력 · 식량·농림업에 관한 아세안+3 협력 전략(APTCS-FAF) 이행 · 장기 안보 기반의 에너지 연계성 협력 증진 · 지속가능 광물 협력, 보건 안보 강화, 재난관리 및 비상대응
사회문화	19항, 23~38항	· 지속가능 관광 협력 · 노령화, 장애 등 사회 보호·복지 강화 · 환경, 생물다양성 보호 ·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농촌개발, 빈곤완화 ·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교육 협력, 청소년 교류
국제 현안	41~43항	·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미얀마 분쟁

자료: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2025년 10월 27일에 개최된 제20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식량안보, 사회문화 등 폭넓은 이슈에 대한 협력 방향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함.

- EAS에는 11개 아세안 회원국과 8개 대화상대국(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 총 19개국이 참석함.
- 의장 초청으로 올해 BRICS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과 G20 의장국인 남아공 대통령이 공개 세션에 참석하여 경제회복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EAS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
- 한국 정부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역내에서 확산 중인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아세안+3(ASEAN+3)과의 공조 강화, EAS 참여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사를 밝힘.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EAS 20주년 쿠알라룸푸르 선언」과 「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예측 조치에서의 현지화 증진에 관한 성명」이 채택됨.

■ 정상들은 아세안 중심성을 기반으로 평화·안보, 경제, 디지털, 포용적 성장, 연계성, 기후·에너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AOIP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CV 2045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 제20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장성명은 총 57개 항으로 구성됨(표 3 참고).
- [평화·안보] 정상들은 최근 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사기, 온라인 범죄 등 초국경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협력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함.
- [경제·디지털·산업 협력] 각국은 WTO 개혁, 공급망 회복력, 녹색·디지털·AI 협력,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조기 타결, 소상공인·중소기업(MSME)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로 함.

- [사회문화·포용적 성장] 각국은 교육·청년·여성 역량 강화, 아동권리·노동·장애인·고령자 포용을 확대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전염병 대응, 정신건강, 농촌개발, 식량·영양안보, 문화·관광 등 광범위한 사회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연계성] 각국은 아세안 연계성 전략계획(ACSP) 등을 토대로 연계성 협력을 심화하기로 함.
- [기후·환경·에너지 전환]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ESG 확산, 월경성 연무 및 해양오염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에너지협력 행동계획(APAEC) 2026~2030'을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전력망 현대화·스마트그리드·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재난·위기 대응] 회원국들은 '재난관리 및 비상대응 아세안 협정(AADMER) 2026~2030' 이행,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센터) 역량 강화, 'One ASEAN, One Response' 실현을 통해 역내 재난 대응·복원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비·대응의 '현지화(Localisation)'를 강조함.
 - 재난 대비·대응의 현지화는 재난 예측·대비 시 국제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이 아닌, 재난이 실제 일어나는 현지의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임.

표 3. 제20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의장성명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개회	1항	· 제20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평가·협력 방향	2~8항	· EAS의 기본 원칙(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외향성) 재확인 · 아세안 중심성 및 AOIP 협력 강화 → 지역 평화·안정·번영 기여 · 국제법·투명성·주권·영토보전 존중,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강조 · 후속 이행·조율체계(EAS Ambassadors 등) 강화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연계 확대
협력 분야	9~11항	· '2024~2028년 EAS 행동계획'을 통한 AOIP 이행 강화 · '아세안 2045: 우리의 공동의 미래' 채택 환영 · 향후 20년간 아세안 공동체 심화 지원
평화·안보	12~16항	·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중요성 재확인, 여성 참여 확대 · 사이버 보안·ICT 범죄 대응 및 역량 강화 · 사이버 사기·온라인 범죄 등 초국경범죄 대응 협력 강화 · 예방외교·위기관리에서 아세안 주도 역할 강화 · 아세안 초국가범죄장관회의(AMMTC), ADMM-Plus 등 아세안 기반 협력 확대
지속가능 발전	17항	· ACV 2045·UN SDGs와 연계한 'Complementarities Initiative 2.0' 개발 중 · 아세안의 SDG 관련 이니셔티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중
기후·환경·에너지	18~24항	· 기후 대응 협력 강화, ESG·지속가능성 보고 확대 → 투자 매력·회복력 제고 · 대기오염·기후변화·해양오염 대응, 월경성 연무 문제 해결을 위한 ACC THPC(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운영 ·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 APAEC(아세안에너지협력 행동계획) 2026~2030 채택 환영, 에너지 안보·전력망 현대화·AI·CCUS·스마트그리드 협력 · 에너지 접근성 개선, 에너지 상호 연계성 강화, 녹색·저탄소 전환 협력
교육	25~27항	· 청년·교육 협력 강화 · 포용적·고품질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포츠·문화·예술 협력
금융	28항	· 아세안 주도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역내 금융·경제 안정과 장기 성장 기반 강화

항목		주요 내용
보건· 전염병	29 ~30항	· ‘전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성명(2020)’ 이행 강화 ·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정신건강 문제 대응 협력 확대
자연재해 관리	31 ~33항	· ‘AADMER 작업계획(2026~2030)’ 이행 지지, AHA센터 역량 강화 · ‘One ASEAN, One Response’ 구현을 통한 아세안 재난 대응 리더십 강화 · 재난 대비·대응의 ‘현지화(Localisation)’ 중요성 강조 · ACDM(ASEAN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비아세안 국가 간 재난 관리 협력 확대
아세안 연계성	34 ~35항	· MPAC 2025 후속 전략인 ‘ACSP’ 이행 협력 · 역내외 연계성 이니셔티브 간 시너지 강화
경제협력· 교역	36 ~39항	· WTO 개혁·공급망·디지털·녹색경제 협력 강화 · DEFA 조기 타결 지지 · 데이터 이동·AI·MSME 디지털화 협력 확대 · 첨단기술·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빈곤 완화	40 ~42항	· 농촌개발, 빈곤감축 협력 · 기후·재난·고령화 고려한 사회보호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식량안보	43항	· 식량·영양안보 강화 · 위기 시 식량 공급망·물류 안정, 쌀 등 주요 식량 공급 안정 협력
해양협력	44 ~45항	· 국제법 기반 해양협력 강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ADMM-Plus 연계 강화 · 항행·비행의 자유 보장, 역내 해양 안정 유지
관광협력	46 ~47항	· 역내 관광협력 및 지속가능 관광 발전 촉진 · 문화유산·창의산업·문화관광 등 문화 협력 강화
여성·청년 참여 확대	48 ~53항	· 여성·청년 역량 강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 돌봄경제 강화 · 아동 디지털 권리 보호·아동노동 근절 · 성평등·장애인·고령자 포용,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
지역·국제 이슈	54 ~55항	·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가자·팔레스타인, 한반도, 미얀마 등 이슈 논의 · EAS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안정 기여
기타 이슈	56 ~57항	· EAS 20주년 기념 ‘쿠알라룸푸르 선언’ 채택 · 재난 대비·대응 현지화(Localisation) 관련 정상 성명 채택

자료: 제20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장성명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RCEP 정상회의

■ 2020년 RCEP 체결 후 첫 정상급 회의로 진행된 제5회 RCEP 정상회의(2025. 10. 27.)에서는 다자무역질서 및 WTO 개혁 지지, RCEP의 역할과 이행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함.

- 아세안 회원국 외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기초로서 WTO의 규칙과 원칙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함.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지역 경제의 회복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교역과 성장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 RCEP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또한 규칙 기반의 자유와 개방 지향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투자 원활화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 국내 및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RCEP 및 국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인정함.
- 이상의 공동목표 달성과 당면 과제의 대응을 위해 RCEP 정상들은 각국 장관에게 ① RCEP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촉진, ② 신청국 가입 절차 진행, ③ 경제협력 의제 강화, ④ RCEP 사무국 설립을 통한 제도 강화, ⑤ RCEP 협정문 일반 검토 준비(2027년 예정), ⑥ 기업 및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를 통한 포용성 유지 등의 후속조치를 지시함.

4. 양자 회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가. 말레이시아

-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5년 10월 27일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함.
- 양국 정상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으며, 이를 통해 교역·투자 및 디지털·녹색경제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¹⁾
 - 양국은 2019년 6월에 한-말 FTA 개시를 선언했으나 같은 해 말에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2024년 3월에 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6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25년 10월 26일에 타결됨.²⁾
 - 이는 신남방정책 강화를 위해 아세안 국가와 여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 한-아세안 FTA와 RCEP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추가 개방, 경제협력 분야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은 이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개방이 미진했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을 얻어내는 한편, 민감 농수산물 개방은 최소화함.
 - 자동차의 경우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 세트) 전기차 세단 및 SUV의 관세(10%) 철폐, △완성 전기차 SUV의 관세(30%) 50% 감축, △가솔린·하이브리드·디젤 CKD 자동차의 관세 인하 등을 통해 한국 자동차 기업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됨.
 - 철강의 경우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에 대한 관세(5%) 철폐,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 감축(15%→10%)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하는 한편,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함.
 - 화학·바이오 연료의 경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측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한국은 바이오연료 관세를 철폐해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요소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함.

1) 경제외교활동포털(2025. 10. 26.), 「[ASEAN 정상회의의 계기]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공식 선언」.

2) FTA강국, Korea, 「한-말레이시아 FTA」.

- 양국은 디지털 무역·녹색경제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경제협력 챗터에 할랄·지식 재산권·공급망·바이오 경제 등 11개 핵심 분야를 규정해 미래 협력 기반을 조성함.
-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한국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보장함으로써 현지 K-콘텐츠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한국이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의 챗터로 채택해 저탄소 녹색기술 관련 투자, 태양광·수력·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증진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반영됨.

■ 양국은 교역·투자 협력 외에도 △방산 MOU 기반 방산 분야 협력 강화,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함.³⁾

- 이번 한-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방위사업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방산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안와르 총리는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힘.⁴⁾
 - MOU는 말레이시아가 타국과 체결한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를 반영함.
 - 말레이시아는 말라카해협을 끼고 있어 해상물류 요충지이고, 국방 현대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크며,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방산 제품 수출 확대, 국방기술 협력, 군수물자 공동생산, 제3국 공동 마케팅 등 협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됨.
- 양국 정상은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협력 분야를 확대해나가기로 함.

나. 캄보디아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7일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초국가범죄 공동대응을 통해 전략적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⁵⁾

- 양국 정상은 2025년 11월부터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한국 경찰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합의하고, 스캠(전화·온라인 금융사기)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함.
-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을 통해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현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향후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함.
-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투자, 인적교류 등 측면에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발전에 한국 기업이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지 정부의 지원을 당부함.

3) 경제외교활용포털(2025. 10. 27.), 「[ASEAN 정상회의 계기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양자회담].

4) 경제외교활용포털(2025. 10. 27.),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기반 방산협력 새 시대 연다.」

5) 경제외교활용포털(2025. 10. 27.), 「[ASEAN 정상회의 계기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양자회담].

5. 평가 및 시사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아세안 순방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천명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글로벌 사우스 진출 확대와 급변하는 국제 정치·안보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며, 신남방정책의 계승·발전을 명시하는 등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명히 함.
 -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대외정책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을 4강 수준으로 격상하고 사람(People)·번영(Prosperity)·평화(Peace)의 '3P 원칙'을 핵심으로 삼은 전략임.
 -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전 정부가 인태 전략의 하부 지역 전략으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추진하면서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음.
 - 한국 정부는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CSP와 연계한 C·S·P 비전을 발표하며 청년 인재양성 지원, 인적교류 확대, FTA 개선 및 미래 전략 분야 협력 확대, 2029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 초국가범죄 근절 등 향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함.
- 글로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주도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 수호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향후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 AOIP, ACV 2045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이번 아세안 주도 다자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WTO 중심의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강화를 공동으로 강조했으며, 역내 경제통합과 공급망 안정성·회복력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함.
 - 특히 이번 아세안 관련 다자 정상회의는 아세안이 2025년 5월에 향후 20년간의 아세안 비전인 '아세안공동체 비전 2045'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정상 선언문에 '아세안 2045: 우리의 공동의 미래' 채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삽입, 향후 해당 전략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초청으로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BRICS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과 G20 의장국인 남아공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아세안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협력 공간을 확장하며,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과 지역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의 양자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한-말 FTA 협상 타결을 통한 추가 시장 개방 및 신통상 분야 협력 기반 구축, 캄보디아와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둠.

 -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협력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은 한-말 FTA를 통해 자동차, 철강, 화학·바이오 연료 등 한국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여건을 개선함.
 - 또한 한-말 FTA를 통해 한국이 체결한 통상협정 중 처음으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의 챕터로 채택해 저탄소 녹색기술 관련 투자, 재생에너지 협력 등 탄소중립 측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한 협력

기반이 조성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중립 등 측면에서 녹색경제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FTA 개선, 아세안 개별국과의 양자 FTA 체결 시 녹색경제 분야 챕터 추가를 고려할 수 있음.
- 초국가범죄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캄보디아와의 양자 회담 의제 선정은 시의적절했으며, 범죄집단들이 국경을 옮겨 다니는 점을 감안해 아세안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세안의 주요 협력국과의 공조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 ‘2026~30년 한-아세안 행동계획’⁶⁾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실질적·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기 행동계획은 2025년 7월 제2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를 토대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아세안공동체 비전 2045’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함.
- 해당 행동계획은 아세안의 공동체 추진 전략에 조응해 4대 축(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교차 분야)별 주요 협력 분야와 방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행동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준비 중임.
- 한국 정부는 위 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중심에 두고 한-아세안 FTA 개선, 디지털 세관 협력 등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과 연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
-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원산지 증명, 공급망 투명성 분야를 한-아세안 협력의 전략 축으로 삼아 디지털 세관, 전자원산지증명서 등 아세안의 제도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아세안 신규 가입국인 동티모르의 역량 강화, 원자력·치안 협력 등 분야별 특화 협력을 행동계획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렬해 아세안의 수요 기반 접근을 강화하고, 한국의 기여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협력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 것임.
 - 2025년 10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정식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대한 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한국은 아세안과 대화를 통해 동티모르에 대한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EP**

6)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2026-2030).